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8화)



“순수의식, 즉 공(空)으로의 여행”

〈출전 : 남전 상응부 경전 23.25.無常〉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오늘은 공(空)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우주를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무궁무진한 우주공간에 떠 있습니다.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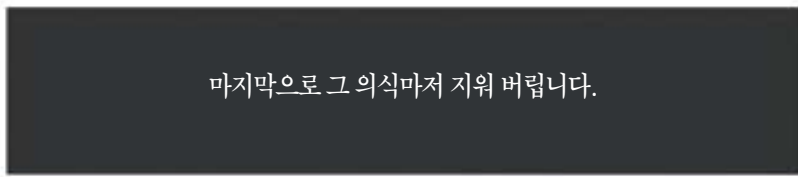


이제... 우주를 지워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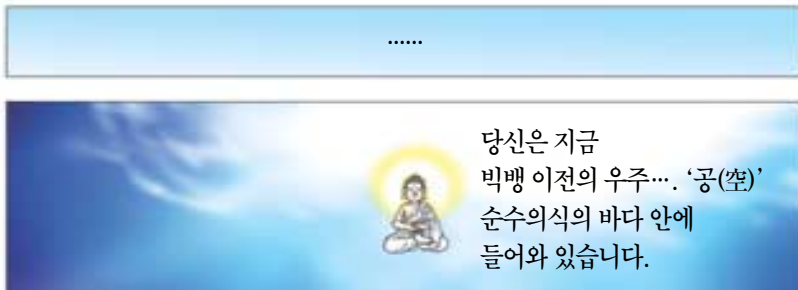
깨끗이 지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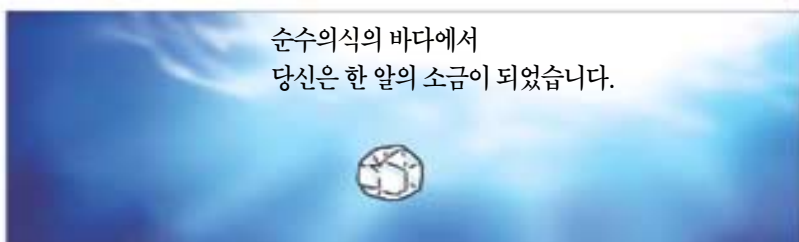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만이 전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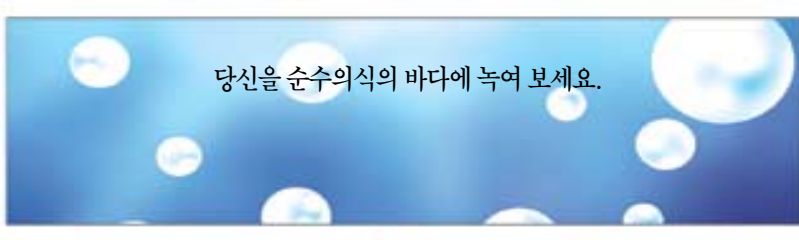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 의식마저 지워 버립니다.



당신은 지금 빅뱅 이전의 우주... '공(空)' 순수의식의 바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순수의식의 바다에서 당신은 한 알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순수의식의 바다에 녹여 보세요.



이제 당신은 순수의식의 일부이며 또한 전체이기도 합니다.



자... 천천히... 눈을 떠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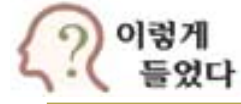
무엇이 보이나요?

당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당신의 일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의식'의 '개체'로서의 나타남입니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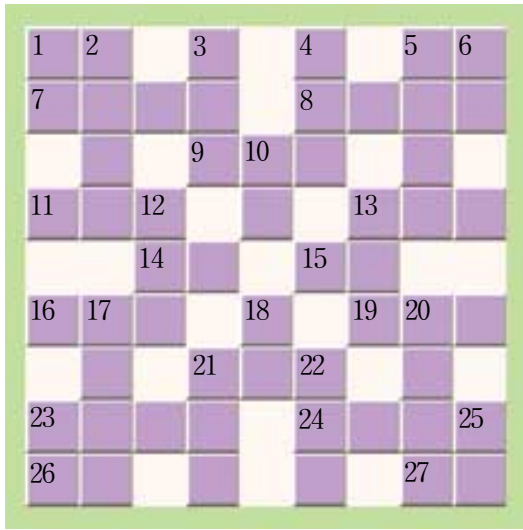
버스 지난 뒤 손 흔들어봐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고 할 정도로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워하는 명절이다. 한 해의 성과를 얻고 조상님들께 그 결실을 맨 먼저 올리는 가장 풍요로운 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번 추석은 즐겁기만 할 수 없어 안타깝다. 가을에 태풍이 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크고 작은 태풍 피해로 슬픈 일을 겪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이토록 엄청난 태풍 피해는 처음이라고 한다. 태풍이 처음 우리나라에 상륙한 날, TV의 보도를 보던 선재는 너무 답답하기만 했다. 이제 막 남쪽에 상륙하여 경상도를 통해서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을 하면서도, 제주도를 강타한 바람이 사상 최고인 초속 60m라고 하면서도, 정작 한 시간에 42km를 움직이는 태풍이 어느 지역을 지나게 되니 어떻게 대비하라는 말은 없었다. 다급한 ‘뉴스특보’에는 그저 피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스포츠 중계하듯 보여줄 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할 일은 37조도품의 ‘사정권(四正勤)’을 실천하는 일이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끊는 노력, 이미 생긴 악을 끊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는 노력, 그리고 이미 나타난 선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특보에서는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을 끊으려는 노력 중에 제일은 계율을 잘 지키는 일이다. <현우경>에서는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고 한다. 계율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것이 있겠는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늘 하면서 후시 있을 앞으로의 나쁜 점을 미리 막고 사는 일이 바로 계율을 지키고 사는 일이다. 예로부터 계율이라는 그릇에 선정의 물이 담겨 있어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는 경구가 있다. 언론이 뒤늦게 모교방송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는 계율의 그릇을 마련했어야 할 일이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석실)

상식퍼즐



가로

1. 잘못을 반성하여 깨달음
5. 하늘 위 7. 진리세계의 모든 것. 천 우주로 최초의 입념 9. 고려시대 사찰에 보급되었던 田地 11. 값이 알려지지 않은 수 13.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 14. 밥 따위를 먹는 일 15. 물을 정화함 16. 고래 뼈를 이용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19. 원고를 작성할 때 쓰는 일정 규칙의 종이 21. 남을 칭하는 글이 담긴 문서 23. 달빛도 희고 눈도 희다 24. 108개의 구슬로 만든 염주 26. 동으로 만든 관 27. 불교에서 쓰는 紀元.

<439호 '교리퍼즐' 정답>



세로

1. 마음에 품은 뜻이 한결같이 참되고 곧음 2. 두 무릎과 팔꿈치 이마를 땅에 붙여 절하는 것 3. 포살할 때 제법을 읽는 사람 4. 기원의 이전 5. 천일 동안 기도하고 수행하는 일 6. 마음에 떠도는 생각 10. 물이 흐르는 근원 12. 나고 드는 숨을 세어서 마음을 가리워하는 관법 13. 과실나무를 재배하는 농장 17. 모든 문관과 무관들 18. 계를 받은 증명서 20. 높은 소리로 외우는 염주 21. 정면한 관리 22. 백두산의 다른 이름 23. 겨우살이 25. 한바퀴 도는 시기.

육법등 (六法燈)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사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p>[참여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p>[장안사원 지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인지도 자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	--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사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